

【 어린이 의료비 조성 】

안녕하세요. 오카야마시장 오모리입니다.

지난 21일, 오카야마시의 2월 정기 시의회가 개최되어 신년도 시정 운영에 관한 소신을 표명했습니다.

이번 메일메거진은 2014년도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어린이 의료비 지원확대에 관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이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선거 기간 중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확실히, 현재 오카야마시를 제외한 현 내 모든 시정촌이 초·중학생의 통원 치료에 관련해 지원(많은 곳은 무료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시 전체의 재정 상태와 의료비 지원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충분히 모르는 단계에서 언급해선 안 된다고 생각해 계속 언급을 삼가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 취임해 각 부서와 논의를 거듭하고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가운데, 생각이 점점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모리 토크」에서는 어느 초등학교의 어머니께 「아이들 3명 모두 기관지가 약해 통원 치료를 받고 있어 부담이 크다. 인접 시에서는 전액을 조성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개인 부담이 큰 것도 물론 문제이지만, 무엇보다도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 아닐까 생각되며 그 문제에 대한 충실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시산에서는 초·중학생의 통원 의료비를 모두 무료화하면 그것만으로 약 18억 엔. 오카야마시의 일반 재정 약 1,830억 엔의 약 1%를 차지하는 금액이 매년 지출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오카야마시로서는 부담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더욱이 무료화를 실시함으로써 진찰 횟수가 증가하고 의료비의 증대와 소아과 의사의 피폐를 한층 더 초래하게도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조성의 범위를 제한한다하더라도 의료비 지급은 현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정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시스템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원래, 어떤 형태로 확대할 것인지, 또한 그 제도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위에서 어린이 의료비 지원 확대 내용은 26년도 예산안 편성까지 충분히 맞출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전문인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빨리 결론을 얻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